설교자는 누구인가?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영혼이 있기에

오늘 복음을 들어야 할 한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설교자로 세우셨다.

오늘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셨다.

오늘 위로받아야 할 한 영혼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목사로 세우셨다.

이 엄숙한 사명 앞에 나는 전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렵니까?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설교자가 당면하는 최대의 딜렘마요 고민이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인격을 관통하여 설교자가 깨어질 때에만 가능하다. 사람은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다.

설교자의 의식과 자세

(고후 2:17)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살전 2:4)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살전 2:5)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살전 2:6)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살전 2:13)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고전 4:9)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전 4:10)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고전 4:11)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고전 4:12)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고전 4:13)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설교자의 책임

설교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설교자의 책임은 성도들을 말씀의 세계로 끌어들여 하나님과 대면(對面)하고 하나님의 음성(音聲)을 듣게 하는 것이다.

때론 엄위하신 하나님, 때론 인애(仁愛)하신 아버지, 때론 때리시며 책망하시는 아버지, 때론 애간장이 녹도록 불쌍히 여기시며 위로하고 싸매시는 하나님, 때론 영혼이 저려오는 십자가의 눈물로써, 때론 형언할 수 없는 십자가의 영광으로, 때론 말할 수 없는 성령의 탄식으로, 때론 그리스도의 모든 보화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영혼은 오열하며 깨지고 다시 세우심을 받아 삼위 하나님께 영광(榮光)의 찬송(讚頌)을 드리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人間)의 언어(言語)는 존재하지 않는다.

금맥(金脈)을 찾는 광부

설교자는 마치 금맥(金脈)을 찾는 광부와 같다. 말씀 속으로 파고 또 파고 들어가 거대한 진리의 금광(金鑛)을 발견하고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부지런히 금(金)을 캐야 한다. 그리고 그 원석(原石)을 성령의 용광로에서 녹여 순도(純度) 100%의 정제(精製)된 금(金)을 성도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설교자는 설교자로서의 자격이 없다. 주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하고 책망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헤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분이 아니다(마 25:26).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이 엄청난 하나님의 부르심, 목사의 소명!『**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오늘날 이런 설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있는가?

(사 49:1)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사 49:2) **내 입을 날카로운 칼 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사 49:3)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눈 높이 낮추기와 단단한 음식

단단한 음식을 성도들의 눈 높이에 맞춰 소화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다.

그러나 자칫 눈 높이를 낮춘다며 말씀을 혼탁(混濁)하게 하거나 질(質)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다. 설교자의 책임은 순도(純度) 100%의 말씀을 알기 쉬운 언어로 배달하는 것이다. 설교자는 배달 사고가 나지 않도록 늘 주의하여야 한다.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만일 신학을 공부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그 공부는 잘못된 것이다. 신학 공부를 참되게 하면 결코 냉냉할 수 없다.

그리스도의 보화를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구원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느낄수록, 증거하고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갖게 된다. 그렇게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목사의 책임이다.

레위 족장들

레위 족장들은 골방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에 전념(專念)하였다.

(대상 9:33)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하므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날에도 목사들에게도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

사도들도 말씀과 기도에 전무(專務)하였다.

(행 6:4)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행 6:4, 개역)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專務)하리라** 하니

목사의 직분

목사는 세상의 그 어떤 지위와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직분이다. 주께서 친히 기름부어 세우셨기 때문이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여, 사람이 무엇이관대 제 인생의 말년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드셨나이까? 인자가 무엇이관대 존귀와 영화로 관을 씌우셨나이까? 생명을 바쳐 주의 말씀 섬기게 하옵소서. 생명을 바쳐 몸된 교회 섬기게 하옵소서.

불덩이 같이 뜨거운 예배

설교를 하면서도 나는 늘 갈급하다. 불덩이 같이 뜨거운 예배, 불덩이처럼 달아오르는 심령, 주의 임재 속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예배, 주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는 예배, 불의 예배, 오, 불의 예배, 내 영혼은 너무도 갈급하다. 내 생애, 단 한번만이라도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성전 문지기

구약 시대 성전 문지기의 의무는 하나님 성전의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었다.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이방인의 성전 출입을 막고, 성전에 우상이 반입(搬入)되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그들의 책임이었다.

(대상 9:17) 문지기는 살룸과 악굽과 달몬과 아히만과 그의 형제들이니 살룸은 그 우두머리라
(대상 9:18) 이 사람들은 전에 왕의 문 동쪽 곧 레위 자손의 진영의 문지기이며
(대상 9:19) 고라의 증손 에비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 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대상 9:20)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대상 9:21) 므셀레먀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최초의 성전 문지기는 아론의 손자『**비느하스**』였다(대상 9:20). 그는 열심히 특심(特甚)한 사람이었다.

(민 25:6)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 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민 25:7)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민 25:8)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염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민 25:9) 그 염병으로 죽은 자가 이만 사천 명이었더라
(민 25: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민 25:11)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민 25:12)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민 25:13)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유다가 멸망한 것은 그들이 이러한 문지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때문이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도 교회의 거룩, 강단의 거룩을 지켜내기 위한 문지기들이 필요하다.

하나님이여
종이 거룩한 문지기의 사명을 다하게 하옵소서!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

하나님, 저는 조금도 멀리 볼 수가 없습니다. 멀리 계획하지도 못합니다. 당신 앞에서 저는 단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소경과 같습니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뿐, 당신이 허락하신 한 편 설교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한 편 설교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생명을 걸고 설교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도우소서. 불덩이처럼 뜨거운 설교, 불덩이처럼 뜨거운 예배를 사모합니다. 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절제

목사가 된 후 내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단어중의 하나는『**절제**』이다. 특히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그러하다. 세상에 대해 절제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주의 종이 될 수 있으랴? 절제하고, 절제하고, 또 절제해서 그리스도의 인격을 보이도록 충성하자!

설교자의 정직(正直)

만일 목사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죄를 상습적(常習的)으로 짓고 다닌다면 그는 이미 목사라고 할 수 없다.

설교자에게 요구되는 정직의 수준은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정직과 그 차원을 달리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이며(롬 3:2),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기 때문이다(고전 4:2).

설교자의 정직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진정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섬기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주일이 다가왔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순번(順番)이 돌아왔기 때문에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매(每) 설교마다 긴장되고 뛰는 가슴으로 온 힘을 다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궁구(窮究)하며 소화하여 그가 받은 은혜를 최고의 열정(熱情)으로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 목회자의 정직이다.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설교자를 기뻐하신다.

설교자와 판사

판사는 법리(法理)로 판결문을 작성한다.

설교자는 오직 말씀으로 설교한다. 판사가 판결로만 말하듯 설교자는 설교로만 말한다.

설교자와 야구 선수

야구에서 4할대의 타자는 최고의 타자이다.

그러나 설교자는 결코 4할대에 만족해서는 안된다. 설교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자(agent)이기 때문이다.

성경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고 가르치신다(마 5:48).

모든 체력과 시간을 아껴

시간을 남용하는 것은 죄악이다. 체력을 남용하는 것도 죄악이다.

설교자의 책임은 모든 체력과 시간을 아껴 한 편 설교에 집중(集中)하는 것이다.

성공이라는 덫

설교자가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성공**』이라는 덫이다.

『목회의 성공』이라는 덫에 걸리면 필경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길을 걷게 된다. 가짜 부흥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다. 말씀만으로 부흥을 일으킬 수 없다면, 차라리 부흥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매너리즘과 직업주의

또 하나 목회자가 주의하고 경계할 것은 매너리즘(mannerism)과 직업주의(職業主義)이다. 매너리즘은 목사를 병들게 하고, 직업주의는 목회자를 부패시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늘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 목사가 잠을 자면 교인들은 혼수상태에 빠진다. 사탄이 노리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기드온의 삼백 용사

오늘날의 목회자들은 기드온의 삼백 용사 보다 하나님께서 돌려보내라고 명하신 32,000 명을 얻으려고 안간 힘을 다하는 것 같다.

말씀만으로 부흥을 일으키지 못한다면 차라리 그 부흥을 포기하는 것이 옳다.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 우리의 사역을 통해 부흥을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내하며 순종할 뿐, 세상의 모든 방법들을 동원하여 인간적인 부흥을 일으키려 시도하는 것은 오히려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것은 말씀을 흐리게 하며 오염시키는 죄다. 그것은 가짜 부흥이다.

하나님, 제게도 기드온의 삼백 용사를 주옵소서.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진정한 부흥을 주옵소서.

비전(Vision)이란 무엇인가?

비전(Vision)이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볼 수 없는 것을 바라보며,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것이다.

비전은 믿음이다. 모든 비전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께로서 오지 않은 것은 참 믿음도, 참 비전도 아니다.

목사는 믿음으로 비전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꺼이 대가(代價)를 지불하는 사람이다.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목사들 중에 자신의 학벌, 교세(敎勢), 자기가 받는 높은 처우(處遇)와 대접, 교단의 직분, 골프 핸디와 자신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심지어 세상을 사랑하여 세속의 명예와 직책을 탐하는 경우도 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런 것들은 모두 배설물이요 해(害)로 여길 것들이다.『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빌 3:8).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차세대 목회자 등으로 자랑하며 칭송(稱頌)하는 것도 옳지 않다. 우리는 모두 무익한 종이다. 격려와 위로도 지나치면 독(毒)이 된다.

(고후 10:17)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니라**)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는 지나치게 목사를 추켜세우는 성향이 있다. 특히 위임식이나 퇴임식에서 이런 경향이 심하다. 초빙 설교자가 담임목사를 필요 이상으로 추켜세우는 경우도 있다.

목사를 지나치게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어떤 사람들은 칭찬을 지나 칭송(稱頌)하기도 한다.

격려와 위로도 지나치면 교만이 된다. 이는 마땅히 주께서 받을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다.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 땅에서 미리 받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마 6:2).

사람들이 기대하는 목사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목사

사람들이 기대하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목사는 어떤 목사일까?

나는 어떤 목사가 되어야 할 것인가? 오, 하나님, 저를 하늘의 언어로 채우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덮으소서. 주의 영광으로 감추소서!

미분과 적분

성경을 주석(註釋) 하는 것은 군대에서 마치 소총(小銃)을 분해(分解)하는 것과 같다. 수학의 미분(微分)과 같이 잘게 썰어 그 깊은 의미를 드러내는 것이다. 반면 설교는 분해되었던 소총을 다시 결합(結合)하는 것이다. 수학으로는 적분(積分)이다.

주석(註釋)이 없는 설교는 설교가 아니다. 반면 주석(註釋) 그 자체가 설교는 또한 아니다.

학자의 혀

(사 50:4)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 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제게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 아침마다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곤고한 자들을 돕게 하옵소서! 학자의 혀, 오, 주님 제게 학자의 혀를 주옵소서!